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12회, 고린도 후서 11장 ,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2,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반대자들은 거만했을 뿐만 아니라 허세도 부렸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몇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인 바울의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일부 신자들에게 자랑하고 간청했습니다.

몇몇은 이러한 거짓 주장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안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의 영적 복지가 위태로웠고, 바울은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교사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이나 단계를 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취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질투심 많은 애정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어리석은 자랑을 12장 13절까지 봅니다. 그래서 11:1에서 12:13까지, 우리는 이 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복음의 진리로 완화된 아이러니의 무기를 능숙하게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는 10장, 12장, 18장에서 발견되는 캐치워드 자랑이 여기서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방금 기록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더 구체적이고 따라서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금 10장 17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하지만 처음에 그는 그들에게 그의 어리석은 자랑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어리석음을 견뎌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금 자랑할 것이고, 그는 16절에서 21절에서도 그것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자랑하며,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싶어 했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만, 내가 그것을 할 때, 나는 그저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면에서도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4절까지 그들에게 그의 자랑을 참으라고 말하고, 5절에서 15절까지 그들에게 그가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6절에서 21절까지 다시 인내를 구했고, 이 긴 서론에 이어 바울은 이제 11장, 21절의 마지막 부분부터 12장, 10절까지 적절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 고난, 개인적 계시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을 그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다는 선언으로 요약하여,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결론적인 에필로그에서 그는 자랑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지만, 12장 11절에서 13절에서 자신의 실제 행동을 사도직의 진정성을 입증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11장을 살펴보면 11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작은 어리석음을 참아 주기를 바라나, 사실 당신은 나를 참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건한 질투심으로 당신을 위해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한 남편에게 약혼시켰으므로, 그리스도께 당신을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함과 순수함에서 빛나갈까 두렵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것을 훌륭하게 참아내느니라.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뛰어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하더라도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어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서 돈을 받아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궁핍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였노라. 형제들이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에 그들이 내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였고 모든 일에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내 자랑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여겨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회를 끊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행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하는 자들입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인 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들도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니,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나도 조금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어리석은 듯이, 이 자랑의 확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므로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셔서 어리석은 자를 기꺼이 참으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누가 너희를 삼키고, 누가 너희를 이용하고, 누가 자기를 높이고, 누가 너희 얼굴을 때리더라도.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약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담대하다면, 나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담대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는 또한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고, 훨씬 더 많은 감옥에 갇혔고, 셀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종종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39대의 채찍질을 다섯 번이나 당했습니다. 막대기로 세 번 맞았습니다. 돌로 맞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는 세 번이나 난파당했습니다. 밤과 낮을 깊은 곳에서 보냈습니다. 나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포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의 위험 속에서 자주 여행을 했습니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종종 먹지 못하고, 추위와 벌거벗음 속에서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런 외적인 일 외에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매일의 압박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지 않다면 누가 약하겠습니까? 내가 강렬하게 염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죄로 이끌리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함에 관한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함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타스 왕의 휘하 민족이 나를 잡으려 다메섹 사람들의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성벽의 창문을 통해 바구니에 실려 내려와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12장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필요하지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낙원으로 끌어올려져 말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는 나의 연약함에 관하여만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하고자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를 삼가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게서 보는 것 외에 또는 내게서 듣는 것 외에는 나를 칭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가 주어졌으니 이는 사탄의 사자로 나를 괴롭게 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대하여 나는 주님께 세 번이나 간구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였고,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함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곤경과 박해와 어려움에 대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의 자랑에 대한 긴 섹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긴 서론에 이어, 바울은 1121b에서 1210까지 자랑합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자기 칭찬의 한 형태로 그의 반대자들을 모방합니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바울은 그의 주님인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합니다.

바보의 자랑의 가면과 그의 사역에서의 실제 자랑 사이의 모순은 전체 구절에 매우 독특한 문학적 매력과 매혹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전체를 읽습니다 . 하지만 바울이 자랑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아마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약하다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고린도에서의 반대에 대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의 약함 속에서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강요했고, 그에게서 그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그는 모든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은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10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앞서 말한 수사적 특성은 법정적 또는 사법적 수사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체 연설을 보고 있습니다. 법정과 같은 법정 수사학이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다시 옹호하고, 따라서 그의 복음을 강한 감정적 호소로 옹호하는 것을 지배합니다.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밝히고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취한 전략을 설명합니다. 적들의 책략에 의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약간의 어리석음에 빠져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11:1에서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아줄 것을 요구하며 그들이 참아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어리석다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직에 대해 존귀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고린도의 일부 비방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절에서 6절까지로 시작하는데, 이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어색한 유형의 자기 방어를 완전히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희망한다, 나는 바란다, 당신이 나의 어리석음을 조금 참아주기를 바란다.” 알다시피, 이것은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선제적 사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는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아주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약간의 어리석음을 참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조금 참아 주세요. 알다시피,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지혜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 잠언 9장, 이사야 3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자신이 바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둘 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어리석지 않지만, 그는 바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패러디라고 부르는 의미에서, 자기 칭찬에 탐닉하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약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꿰뚫어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참아내어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런 다음 2~4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그들이 자신을 참아달라고 요청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는 for를 의미하는 입자 gar로 소개됩니다. 각각의 이유는 소개되는데, 번역에서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이런 이유로 gar로 번역됩니다.

이런 이유로, 2절과 3절에서, 2절과 3절의 자랑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는 경건한 질투심으로 너희를 질투합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약혼시켰으니,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바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함과 순수함에서 떠나 그릇 인도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그들을 소개했다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경건한 질투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어했던 이유는 경건한 질투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고린도인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경건한 질투심으로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4절에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유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와 그들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들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또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5 절에서 말하고 싶어했습니다 . 왜냐하면 그는 “나는 뛰어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뛰어난 사도들에게, 5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뛰어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경건한 질투. 둘째,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같은 구절을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간청한 첫 번째 동기는 그의 경건한 질투심에서 흘러나온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아주 아주 깊은 관심을 그들에게 공유한다.

마치, 보세요, 신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걱정하는 건 신이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아시다시피, 기원의 개념은 제가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여기 문법을 살펴보면, 신의 개념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이 지닌 질투심이죠.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당신 자신의 질투, 인간의 질투는 사람들의 질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서로를 질투합니다. 질투와 부러움: 우리가 말하는 질투의 종류는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거나 부러워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나는 갖고 싶어, 당신이 가진 것을 당신이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그것이 인간의 질투와 부러움이야.

그것은 신이 말하는 질투의 종류가 아닙니다. 신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독점 재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제 말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읽어보면, 너는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삼사대까지 벌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으리라. 그리고 물론, 34장 14절에서, 그는,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스겔 23장 35절, 25절에서, 내가 내 질투심을 너에게 두리니, 그들이 너를 맹렬히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네 코와 귀를 빼앗을 것이요, 네 남은 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네 아들과 딸들을 데려갈 것이요, 남은 자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었두에 둔 질투의 종류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품고 계신 질투와 같은 종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구절을 읽었습니다. 보다시피, 정확한 뉘앙스가 무엇이든, 바울의 요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어떤 강력한, 단순한 인간적인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깊은 감정에 관여하십니다. 연인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바울은 여기서 바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한 남편에게 약혼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 남편, 곧 그리스도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경건한 질투심으로 당신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그에게 순수한 처녀로 바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 구절에서 바로 거룩함의 언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도 단 한 번, 여기서만 쓰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밀한 연합으로 이끌고, 합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유대인 결혼 관습의 맥락에서 약혼을 위해 사용됩니다. 알다시피, 바울의 비유의 배경은 구약성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을 그의 백성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50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쫓은 너희 어머니의 이혼 증서는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아버린 내 채권자 중 누구에게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를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허물로 인해 내쫓겼다. 2절, 내가 왔을 때 사람이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할 수 없느냐? 구원할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지람할 때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광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의 물고기는 물이 없어서 냄새가 나고, 목마름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이 그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본질을 보여주며, 예수 자신도 결혼 잔치의 관점에서 메시아적 완성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참조 사항을 다룰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고, 물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다섯 명은 지혜롭고 다섯 명은 그렇지 않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들을 다섯 명의 지혜로운 사람, 다섯 명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의 언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잘 알려진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위한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이는 모든 신자를 대표하고 단체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약혼시켰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른 외부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약혼은 약혼한 부부가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공식적인 계약이었지만, 결혼 잔치가 있기 전에는 1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는 부모의 집을 떠나 남편의 집에서 가정과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남편에게 약혼시켰습니다. 나는 경건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쟁자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이 오늘 그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넣어 봅시다.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섬기고 싶다면 다른 하나를 미워할 것이고, 그는 그것을 돈의 맥락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재물의 종이면서 주님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다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쟁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주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살던 시절에 한 마을을 동시에 두 왕이 다스리는 일은 없다는 속담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한 번에 한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있을 뿐이고, 물론 당신은 한 나라를 동시에 다스리는 두 명의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의 대통령만 있을 뿐입니다. 두 명이 있다면 그 나라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정 도시를 다스리는 두 명의 시장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로 해석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다른 주님에게 충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잠깐만요, 만약 내가 복음에서 당신의 아버지라면, 만약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금 당장 당신의 충성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첫째,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나는 당신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해야만 했습니다. 알다시피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바울의 독특한 요점은 신부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당신을 한 남편에게 약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언어입니다.

크리소스톰이 세상에서 지적했듯이, 여자는 처녀성을 잃을 때 결혼 전에 처녀이지만, 교회의 필요성에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전에는 처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녀성을 얻습니다. 그 결과, 교회 전체가 처녀가 됩니다. 제 말은, 순수한 처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언어인 하기온을 다시 사용하는데,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고, 우리는 거룩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비유에 따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순수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는 결혼적 성취는 의심할 여지 없이 메시아적 성취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의 영적 자녀들에 대한 책임에 감동하여 침입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에서의 그의 사역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여 무산될 수 있으므로 그는 목회적 두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은 사랑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사랑의 속성이다. 그런 두려움은 사랑의 속성이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는 그들을 질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속을까봐 두려워했고 ,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타락할까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빛나갈까봐 두렵습니다
.

그는 그들을 원한다. 그는 그들이 매우 조심하기를 바란다. 그는 자신을
약혼과 결혼식에서 딸을 미래의 남편에게 주는 아버지에 비유한다.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반응은
약혼 행위와 유사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신자들을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칠 때를 기대합니다.

한편, 그는 그들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온 신자들, 아마도 빌립보에서 선물을 가지고 온 신자들, 그는 모든
일에서 독자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거짓 교사와 지도자들에 대한 분별력 부족에 대해
예수님께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5절에서 바로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슈퍼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지금 그들을 언급하는 듯합니다. 그는 그들을 슈퍼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 말은, 이들은 그저 거짓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슈퍼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내가 조금도 열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슈퍼 사도는 누구인가? 슈퍼 사도라는 개념은 많은 질문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NRSV와 NIV를 읽어보면, 4절에서 바울의 반대자들과 동일시합니다. 다른 해석자들은 일반적인 비공식적 의미를 선호합니다. 다른 해석자들은 바울이 가장 뛰어난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기둥 사도들을 의미하거나 단순히 12번째 사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와 12:1에서 모두 말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이 맞다면,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거짓 사도와 슈퍼 사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짓 사도는 오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슈퍼 사도는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점에 대한 많은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맞다면, 즉 우리가 교회의 기둥, 초기 사도나 12사도, 아니면 둘 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울은 원래 사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들 중 누구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사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슈퍼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6절에서 그는 자신의 가입을 양보로 자격을 부여하고, 새로운 가입은 even if로 소개됩니다. 11장 6절을 보세요. 여기서 내가 말에는 서툴러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훈련된 화자가 아니더라도, 그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훈련은 안 되었지만, 기술이 없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강조해서 두 배로 주장합니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같은 방식으로 자랑할 수 있고, 아무도 그를 질책하거나 그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고 그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탐닉해야 한다고 느낀 어리석음에 대한 근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과 마주하게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신성한 진리에 대한 확신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영적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울의 자랑을 살펴볼 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7절부터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자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값없이 전파하는 관행은 용병 정신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바울의 적들에게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 돌아다니는 냉소적인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앞서

말했듯이 바울의 적들 중 일부에게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사도적 존엄성이나 지위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장인인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합니다. 둘째, 바울은 후원자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후원자와 고객에 대한 관습을 위반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고객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그에게 권위와 통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동의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그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그의 필요를 충족시켰다면, 그는 왜 그들의 지원을 거부합니까? 그것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초대했던 자칭 사도들은 그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급여를 받았지만 바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 고린도 개종자들의 마음속에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생계를 얻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냥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인용한 자신의 말을 실제로 어긴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잘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5장 17-18절에 따라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바울은 가치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도는 13-15절에서 자신의 동기와 거짓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동기를 명확히 대조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파한 것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용병의 살포에 동기를 부여받은 그의 적, 그의 반대자들에게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드러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책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진리에 호소하면서 사도는 아카이아에서 자신의 정책을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의 반대자들이 비난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들에게 대한 그의 감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아십니다. 바울의 재정 정책은 두 배의 어려움을 만들어냈고, 그의 적들은 그것을 이해했고, 그들은 우리가 방금 언급한 것에 매달렸습니다.

즉, 그것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적 특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특권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설교하러 가기 전에, 그들은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제발, 제 사랑의 제물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이미 계산을 합니다. 이게 제 사랑의 제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할 때 원하는 사랑의 제물을 협상할 때 이루어집니다 .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설교하러 간 목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실화입니다. 그는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개인 제트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내자, 그들은 그에게 일정 금액을 주었는데, 그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고 싶은 금액은 당신이 당신의 돈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내가 비행기를

주차했던 격납고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게 준 돈은 내가 비행기에 사용한 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다니던 설교자들은 돈을 받고 설교했습니다.

폴은 말한다, 나를 제외시켜. 나는 누구도 내 자랑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재정 정책에서 자신과 동등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적들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 나를 그들 중 한 명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적들이 무엇을 낚으려 하는지 알고 있었고, 미끼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책임을 지고 사역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런 자랑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의 행위와 일치할 것이다. 그들의 끝은 그들의 행위와 일치할 것이다. 보다시피,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매우 교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암시한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코린트에서 그의 적들과의 차이점을 날카롭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마치 그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는 매우 가혹한 언어로 그들을 묘사합니다. 그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기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pseudo- apostolos , 완전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들에게 어떤 합법성도 부인합니다. 그는 그들이 진정한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불렀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고린도에 전한 메시지에서 거짓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13절에서 15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용하는 방법에서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도 틀렸습니다. 곧, 속이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코린트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사기적이고, 배신적이며, 교활합니다. 사기적이죠. 렌스키가 사기적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는 원래 미끼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전혀요. 피해자를 잡기 위해 던져진 거예요.

그들은 미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지에 있는 사람들을 잡고, 코린티안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인데, 거짓 교사들이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기꾼 일꾼들. 이것은 선교사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교회에서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선호하는 명칭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들은 사도라고 불리기를 원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폴은 그것이 가면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변장이었습니다.

허세. 그래서 그는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가면이라는 단어가 유행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세 번 나타난다. 세 번 나타나는 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구절을 하나로 묶는다. 그는 그것을 가면극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가면극입니다. 그리스어는 13절에서 15절까지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사도는 일종의 비난의 언어로 아이러니를 담아 계속해서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탄 자신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을 빛의 천사로 묘사하면서 바울은 어떤 유대인 전설에 대한 지식을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천사, 심지어 사탄 자신도 자신을 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사탄이 때때로 교활한 뱀과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형태로 시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사탄이 종종 빛의 천사로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종교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기독교는 실제로 그것을 전복합니다. 제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15절에서, 그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로 변장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니까? 그의 논증 방식은 주요에서 부차로입니다 . 그가 사용하는 논증 방식입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행세한다면, 그의 사역자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러므로, 만약 사탄, 위대한 자, 인용문에서 위대한 자가 변장을 한다면, 하인인 더 작은 자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변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들을 하인 , 아르곤 오이, 사실상 사역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편지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들을 보았습니다. 제 말은,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의의 사역자로 위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아니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와 일치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행동은 사도적 전략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동기,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의 태도에 대한 궁극적인 정당화는 그리스도론적이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바울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11:16에서 21까지 그는 다시 자랑을 참으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의 풍자와 자신을 홍보하는 데 주저하는 태도는 16절에서 21절까지 쉽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고린도인들이 그의 진정한 사도로서의 자격, 예수의 진정한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무시함으로써 방해를 받습니다 . 바울은 자신의 자격을 자랑하는 진짜 바보들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에서

바울의 경쟁자들은 고린도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자랑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나요? 그는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나도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런 전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이 자랑의 수단도 사용하려는 절박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 속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기억해요. 어떤 곳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 다시,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그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풀이 조용히 있었다면, 우리가 말했듯이, 그가 없을 때는 대담하지만, 그가 여기 있을 때는 소심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가 조용히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말합니다. 좋아요, 내가 당신만큼 대담하다는 걸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래야 당신도 당신 자신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격 증명에 근거하여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시작할 때, 그가 진정한 사도로서 자신의 신임장을 진술하기 시작할 때 분명해질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에 대해 글을 쓸 때 어떤 힘을 느꼈고,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자랑하는 것을 보고, 나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육체에 따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랑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날카로운 풍자를 사용합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합당한 목적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굴복할 때만, 성령의 통제 하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바보들을 참을 만큼 지혜롭다면, 그들은 잠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제 말은, 그들은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많은 바보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잠시 동안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할까요? 그래서 21장에서 그 장의 끝까지 바울은 자신의 신임장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강의 중 하나에서 학생들에게 보통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자격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 자격을 살펴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랑하든, 나는 바보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인가? 나도 그렇다. 아주 좋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다. 그들은 이스라엘인인가? 나도 그렇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요? 훌륭하네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목사인가요? 오, 이거 참 좋네요. 뭐, 훌륭한 자격증이죠.

미친놈처럼 말하고 있어. 난 훨씬 더 큰 라벨, 훨씬 더 많은 투옥을 가진 더 나은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그의 신원을 봐.

저는 여러분이 23절부터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읽었지만, 여러분은 다시 읽어보세요.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냐? 내가 미친 듯이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레이블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그의 자격 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라벨, 더 많은 투옥, 셀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종종 죽음의 위험에 처했고, 39번의 채찍질을 당했고, 3번은 막대기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난파되었고, 기사가 되었고... 제 말은, 이것들은 훌륭한 자격들이지 않나요? 제 말은, 누가 이런 환상적이고 훌륭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하겠어요? 사방에서 매를 맞고, 사방에서 엄하게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는 33절에 이르러서, 나는 바구니에 실려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나빴는지 알 수 있죠. 이 섹션을 읽으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살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시다시피, 브루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장례식에서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장례식에서 브루터스가 나타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지나치게 야심찬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브루터스와 그의 공범들은 로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카이사르를 죽이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렇게 해야 했다. 그래서 맥앤서니가 일어나서 지금은 익숙한 연설을 한다.

기억하시죠,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그는 “et tu , Brute, 그리고 너도, Brutus”라고 말했죠. 이제, MacAnthony 가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는 “친구들, 로마인들, 국민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카이사르를 묻으러 온 것이지, 그를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설에서 부드럽고 영리하게 카이사르를 칭찬하고, 친구의 위대함을 펼치고, 브루투스의 말을 훼손하기 시작한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는 나의 친구였고, 나에게 충실하고 정의로웠지만, 브루터스는 그가 야심적이었다고 말했고, 브루터스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울었을 때, 카이사르는 울었습니다. 야심은 표준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브루터스는 그가 야심적이었다고 말했고, 브루터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맥앤서니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존경받는 브루터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용문에서, 존경 받는 브루터스는 이 고귀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을 브루터스에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맥앤서니 는 카이사르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친구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폴의 전체 연설은 의도가 다소 비슷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랑이고, 나는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 당신은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자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말했습니다. 아니, 이 설교자들은, 이게 그들이라고.

그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린도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이 돌아선 데서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 말은,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고, 그의 반대자들처럼 자랑하면서, 그는 그들의 자랑을 뒤집어엎습니다. 그는 그의 반대자들처럼 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뿐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의 반대자들은 중요한 주장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배경을 내세웠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과 비슷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고, 이 용어는 그를 헬레니즘화된 유대인과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신자들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월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성은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중요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민족적 기준을 통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3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바친 놀라운 봉사를 설명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겪은 고난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고통의 수, 빈도, 다양성, 강도는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렬하게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적절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은 바울에게서 돌아서서 그들에게서 돈을 버는 이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도로서 그는 그들에게 공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것은 더 큰 공감이었습니다.

우리는 25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26절에서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역을 위해 여행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 가장 드러났던 때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약함과 굴욕의 예로 언급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가장 자랑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결심한 것은 그리스도의 승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약할 때마다, 그리고 무언가가 성취될 때마다, 예수께서는 영광과 영예와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일심의 헌신이 바울이 기독교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반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좋게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처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마크 앤서니처럼 시작해서, 나는 카이사르를 장사지내러 왔지, 그를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모두 그의 약함입니다.

그의 자랑은 그의 반대자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Ayo Adewuy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고린도후서 11,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입니다.